

일반
논문

1980년대 한국 기독교노동자와 노동운동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기노련)의 형성과 역할

박철 _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논문 요약

이 논문은 1960~70년대 기독교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도시산업선교회(산선)와 달리 1980년대 새롭게 등장한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기노련)에 대한 연구로 기노련의 건설과 활동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소들을 살피면서, 조직의 형성 과정과 1980년대 노동운동에서 이들의 역할을 고찰했다. 기노련은 1970년대 산선과 연관되어 있던 민주노조들이 파괴되고, 산선 또한 국가의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교회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노동운동의 필요에 의해 형성됐다. 기노련은 학생 활동가, 또는 산선과 같이 목회자나 실무자가 아니라 개별 교회 신자들인 일반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주체적인 조직이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들은 기독교라는 울타리를 이용해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갔으며 정치투쟁과 노조 지원, 연대운동 등을 실천했다. 특히 대중집회가 거의 불가능했던 1980년대에 교회를 거점으로 많은 노동자 대중이 모일 수 있는 집회를 주관함으로써 노동운동에 활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산선 및 민중교회 목회자들과의 갈등, 자금 사정의 열악함 등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기노련에 대한 이 같은 분석은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발굴함으로써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지평을 확대하는데 기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 주제어: 기독교노동자, 노동운동, 합법성, 도시산업선교회,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기노련)

DOI: <http://dx.doi.org/10.31008/MV.41.5>

1. 서론

1980년 5.18광주민주화항쟁은 학생과 재야인사들 중심의 민주화운동에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사회변혁과 개혁이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그 주체가 민중이어야 한다는 인식이었다(은수미 2006, 208). 이러한 변화에 따라 1980년대 민주화운동은 학생들의 공장투신으로 민중의 한 주체인 노동자들과 함께 진행되기에 이른다. 당시 노동자와 학생 간 연대가 이루어진 노동운동은 사회변혁의 강력한 주체로 떠올랐으며, 노동자들의 권익과 함께 공장의 민주화와 정권의 민주화를 주장했다. 이 연구는 1980년대 그러한 상황에서 전개된 종교계의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고, 특히 기독교 종교를 가진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조직인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기노련)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기술하고자 한다.

기노련에 대한 관심은 1950년대 말 시작 되어 1970년대까지 활발했던 도시산업선교회(산선)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노동운동이 국가의 탄압과 학생운동가들을 통한 새로운 노동운동의 출현으로 1980년대에 이르러 약해졌다(이원보 2007, 250)는 기존 논의와 달리, 주도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지속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후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을까 궁금증을 갖게 되면서 생겨났다. 그리고 1980년대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학생들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반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노동자 중심의 활동에 집중하게 되면서 기노련을 주시하게 됐다.

아직까지 기노련에 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기노련과 연관이 있는 기독교 노동운동단체에 대한 연구는 몇몇 연구자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장숙경(장숙경 2013)의 연구는 역사학적인 분석으로서 1970년대 군사정권과 정교 유착한 보수적 개신교의 흐름과 달리,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운동을 전개했던 도시 산업선교회의 활동을 다룬다. 장숙경은 산선이 개신교회의 보수세력과 기업, 군사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악한 환경의 여성노동자들을 의식화하는 데 노력했다는 점과, 이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치사회의 부조리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근로조건 개선과 어렵게 조직한 민주노조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을 불사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다.

박철·이종구(박철·이종구 2015)의 연구는 1980년대 구로지역에 위치한 교회들 중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민중교회들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들이 지역 노동운동에서 수행했던 역할을 다룬다. 박철·이종구는 구로지역에 위치한 5개의 민중교회가 공통적으로, 에큐메니즘이라는 기독교적 가치 위에 사회참여를 추구하는 개혁적인 목회자들과, 노동운동을 위해 민중교회를 필요로 하는 활동가 및 노동자 그룹이 서로의 요구에 의해 결합함으로써 형성되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민중교회들은 구로지역 노동운동에서 다음 3가지 역할을 수행했다고 분석한다. 첫째, 비합법적 노동운동이 교회라는 공적인 조직을 통해 전개될 수 있도록 도왔다. 둘째, 교회 내에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이 감시를 피해 만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980년대 노동운동의 특징인 노학연대를 이루는 데 일조했다. 셋째, 구로민교(구로지역민중교회연합)라는 연대조직을 만들어 교회 연합

행사와 같은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연대운동을 실천하는 데 이바지했다.

이들 연구는 한국 노동운동에 있어서 기독교의 활동과 역할을 살핌으로써 그동안 논의가 빈약했던 기독교 노동운동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을 발굴해낸다는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장숙경과 박철·이종구의 연구는 주로 실무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활동에 무게감을 두고 있어 일반 기독교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활동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기존연구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1980년대에도 지속됐던 기독교 노동운동, 특히 기독교인이면서 일반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기노련을 발굴하여 그 형성원인과 과정, 그리고 노동운동에서 이들이 수행한 역할 및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은 1980년대 형성되었던 기노련을 대상으로 하며 문헌자료와 구술인터뷰를 연구에 활용했다. 문헌자료는 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기증되어 보관 중인 기노련과 관련된 신문기사, 선언문, 운동일지, 활동보고서, 간행물, 선전문 등의 다양한 자료¹⁾를 사용하였고, 구술자료는 당시 기노련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한 자료를 이용했다. 인터뷰 대상은 접근 가능한 인맥을 동원하여 다음의 3명을 면담했다.

이름	성별	80년대 소속 및 직책	유형	출신
신철영	남	영등포산선 실무자	70년대 학출	서울대학교
유동우	남	기노련 초대 회장	70년대 노동자	삼원섬유 노조
한명희	여	기노련 초대 사무국장	70년대 노동자	콘트롤데이터 노조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자료는 제목에 < >표시를 했고, 참고한 자료는 각주에 기입했다.

2. 기노련의 형성과정

1) 시대적 상황

1970년대 유신체제 아래 민주화운동 및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군사독재정권의 탄압이 지속 되어 오던 가운데,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죽음으로 정치적 자유가 찾아오면서 한국 사회는 이른바 ‘서울의 봄’을 맞이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그 희망은 그리 멀리 가지 못하고 좌절되고 만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고,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던 저항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을 강화한 후 그다음 날인 18일 광주를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하기 시작한다. 27일까지 지속된 이 탄압속에서 수백 명의 시민·학생·노동자들이 학살당하는 참사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신호탄으로 한국 사회는 다시 군사독재의 서슬 퍼런 억압 아래 놓이게 된다(구해근 2002, 155; 장숙경 2013, 344-345). 군사정권의 탄압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 1980년 9월 헌법개정안을 발표한 후 국가보안법과 노동법²⁾ 등을 개악하고, 정치풍토쇄신특별조치법과 언론기본법

2) “勞動關係法改正案 주요내용 ▲노동조합법개정안=①企業단위의 노조체제를확립, 單一기업 내의 노사교섭창구를 一元化 ②勞使문제에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여 불순세력의 간섭을배제 ③勞組결격도 단위노조를 기본으로 産業別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나 노조의 지역지부는폐지.”(경향신문 1980/12/26, 3면). 1980년 12월 30일 이 법안을 통과시킴.

을 통과시켜 시민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및 정치활동의 자유를 규제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말살, 절멸³⁾하고자 하였다(최현·김지영 2007, 263; 신진욱 2004, 236). 전두환 정권의 이 같은 전방위적인 압제 가운데 1970년대 형성됐던 민주노조들이 대부분 파괴되기에 이르면서 민주노조운동 또한 크게 쇠퇴하게 된다. 유신말 동일방직, YH 노조가 강제해산당한 데 이어 반도상사, 청계피복, 콘트롤데이터, 원풍모방의 민주노조들이 1980년대 초까지 모두 파괴되었으며, 사업장 안에서 민주적인 노조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독교 노동운동의 핵심 세력으로 1960~70년대 민주노조운동을 외곽에서 지원하던 도시산업선교회 또한 전두환 정권의 탄압에 의해 타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긴장상태는 1983년 말부터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전두환 정권은 학원 내에 있는 경찰병력을 철수하고, 제적 학생을 복교시켰으며, 구속 학생들을 석방하고, 해직교수들에 대해 복직 및 채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학원자율화조치를 1984년 봄까지 시행한다. 그리고 정치풍토쇄신특별조치법에 의해 정치활동규제 및 금지를 받는 대상자에 대한 대폭적인 해제를 3차에 걸쳐 실시한다.⁴⁾ 1983년 말 이루어진 이 같은 유효조치는 체제의 개방성을 넓힘으로써(최현·김지영 2007, 264) 민주화운동과 저항운동의 발전에 중요한 기회로 작용했다.

3) 신진욱은 1980~83년 말까지 전두환 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대응양식을 절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저항조직의 완전한 분쇄를 유일한 목적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폭력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신진욱 2004, 236).

4)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83년 말에서 1984년 초 언론기사를 참조.

유화국면 속에서 기노련 또한 출범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 기노련의 설립배경에는 그 같은 정치적 상황과 함께 기독교 진영의 사회 참여적인 운동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국 개신교의 주류인 보수세력은 반공 이데올로기의 옹호자로서, 그리고 국가의 활동에 적극적 지지를 보이거나 침묵으로 동조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 후원자로서 그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고, 사회적인 문제와 관심보다는 개인 구원과 양적 성장이라는 경제 논리에 사로잡혀 사회의 신음과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기독교 내의 보수세력들은 반공 이데올로기와 성장주의(강인철 2007, 128~139)에 입각해 정치권력과 협력관계(강인철 2007, 394~395)를 유지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그 같은 주된 흐름과 달리 보수적인 한국교회를 비판하며 사회참여와 변화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전개되어 갔다. 1948년에 설립된 에큐메니칼 운동의 세계기구인 WCC⁵⁾와 1959년 창립한 EACC⁶⁾에 의해 영향을 받은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안병무, 서남동, 문익환, 김재준, 강원용, 박형규 등을 들 수 있으며, 기관이나 단체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⁷⁾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크리스찬아카데미, 도시산업선교회, 도시빈민선교회, 농어촌선교회, 통일선교회, 민중교회,

5) WCC(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교회협의회
 6) EACC(East Asia Christian Conference): 동아시아기독교협의회. EACC는 이후 1973년 CCA(Christian Conference of Asia, 아시아기독교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게 되는데, 이 CCA가 기노련에게 자금을 대준 해외단체이다.
 7) KNCC(The Korea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리고 기독교학생 단체인 YMCA, YWCA, KSCF,⁸⁾ EYC⁹⁾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군사정권과 부조리한 사회에 저항하며 1970~80년대 사회 변화를 추구해 나갔다(박상증 편저 1992; 연구홍 1988).

이러한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진영에는 세계교회협의회와 그 맥을 같이하는 중요한 사상적 흐름이 존재했다. 그것은 그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에큐메니칼 정신’이라는 이념이었다. WCC 국제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한국에도 수용되어 에큐메니칼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었는데, 특히 강조되었던 것은 ‘연합과 일치’, ‘책임사회’, ‘하나님의 선교’,¹⁰⁾ ‘인간화’, ‘오늘의 구원’, ‘해방’, ‘정의롭고 참여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JPSS),¹¹⁾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었다(WCC 1993; 연구홍 1998). 에큐메니칼 정신이란 이러한 가치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의해 형성되는 기독교적 가치로서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선교와 사회참여를 지향하며 억눌린 자들의 해방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정신적 흐름”(박철·이종구 2015, 311)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 같은 가치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핵심 문

8) KSCF(Korea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9) EYC(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EYC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청년들이 연합한 조직으로서 교회를 기본 단위로 하는 대학 청년 중심의 사회참여 운동 단체라고 할 수 있다. 교단별 청년 조직 명칭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기청),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청년회전국연합회(장청),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감청)이다.

10)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있음과 같이, 교회는 세상 속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JPSS - A Just Participatory Sustainable Society

서인 성서에 기초한 것이며, 나아가 성서의 내용을 토대로 인류가 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구체화 된, 구조적인 특성을 지닌 기독교적 정신이라 하겠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한 형태인 도시산업선교회와 민중교회의 연속 선상에 놓여있던 기노련은 출범 이전 이 같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신사적 흐름 가운데 위치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준비단계

기노련의 형성은 1970년대 민주노조들이 파괴되고 도시산업선교회가 탄압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 무엇보다 기독교라는 울타리를 이용하여 좀 더 안정적으로 대중집회 및 대중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했던 것이다.¹²⁾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소개>¹³⁾에는 기노련이 1970년대 산업선교회를 발전시켜 산선과 노동목회자들의 상호협력으로 창립되었다고 기술한다. <기독교 노동운동의 현황과 전망>¹⁴⁾에는 독재정권의 억압 속에서 1984년 기노련을 결성하고자 하는 요구와 노력이 1970년대 선배 노동자와 교회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고, 기노련 건설을 위한 기독교 출신 선배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의 결과 ‘영등포산업선교회’에 나오는 기독교 노동자들과 ‘예장 산업전도부’에 소속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기노련 건

12) 2019년 8월 5일, 맥도날드 영창DT점, 면담자 박철, 한명희 1차 인터뷰 중에서

13)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소개>(생산일자: 198*/00/00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14) <기독교 노동운동의 현황과 전망>(생산일자: 1991/00/00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설을 위한 준비 모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기노련의 창립을 논의하는 단계(기노련 건설을 위한 기독교 출신 선배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와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단계(기노련 건설을 위한 준비 모임)를 구분해볼 수 있다.

우선 먼저 기노련 창립을 논의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기노련에 대한 구상은 신철영과 한명희를 중심으로 시작됐는데 이들이 그러한 계획을 갖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신철영은 1970년도에 서울대 공과대에 입학한 후 대학생 시절 노동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산업사회연구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산업사회연구회는 초창기 서경석 목사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서울대 노동운동 서클이었는데, 서경석 목사가 교회 쪽 운동 진영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신철영은 자연스럽게 도시산업선교회와 연결이 되었다고 한다.¹⁵⁾ 대학 졸업 후 취직해 회사를 다니던 중, 1978년 5월에 영등포산업선교회(영등포산선) 인명진 목사가 구속되며 영등포산선이 대대적인 탄압을 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영등포산업선교회 40년사 기획위원회 1998, 194). 이 같은 상황이 되자 영등포산선에서는 급하게 일할 사람을 찾게 되는데, 신철영은 이때 서경석 목사의 추천으로 그해 7월 18일 산선 실무자로 부임하게 된다(영등포산업선교회 40년사 기획위원회 1998, 588). 그는 부임 전후로 많은 민주노조들이 국가의 거센 탄압에 무너지고 이러한 과정 속에 영등포산선과 관계를 맺고 있던 컨트롤데이터와 원풍모방 노조 또한 파괴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 그는 무엇보다

15) 2019년 7월 16일, 충북 괴산 자택, 면담자 박철, 신철영 1차 인터뷰 중에서

영등포산업선교회가 전력을 쏟던 원풍모방 민주노조가 파괴된 이후 이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운동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¹⁶⁾ 신철영은 1970년대 말부터 민주노조가 대대적인 탄압을 받게 되고 이들이 절멸되던 시기에 영등포산선의 실무자로 있으면서 산선과는 다른 형태의 노동운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오히려 국가권력의 압제적인 정치적 상황이 새로운 노동운동을 모색하는 기회로 작용했음을 볼 수 있다.

1973년에 콘트롤데이타에 입사한 한명희는 1977년부터 노조활동을 시작해 노조의 민주화 투쟁에 참여하게 되고 민주화된 노조에서 부위원장과 위원장을 역임한 이력을 갖고 있다(한명희·유경순 2019, 319). 그녀가 영등포산업선교회와 처음 관계를 맺게 된 때는 콘트롤데이타 노조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도움을 받고자 영등포산선을 찾으면서부터였다. 1977년 5월쯤 “마실가듯” 발을 들이고, 1978년 1월 정도에는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조안을 얻고자, 그리고 민주노조가 임금인상 투쟁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도움을 받고자 영등포산선을 찾아갔던 것이다. 그녀는 1980년을 통과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가운데 노조를 지켜내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의 자원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품게 되고 영등포산선에 있는 영등포노동교회를 나가기 시작한다. 모태신앙을 지녔지만, 교회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그녀는 영등포산선과 교

16) 2019년 7월 16일, 충북 괴산 자택, 면담자 박철, 신철영 1차 인터뷰 중에서

회를 다니면서 목회자들의 삶과 설교에 감동을 받고 노동운동과 기독교 신앙이 연결되는 경험을 했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그 후 그녀는 1981년 정도에 세례를 받게 된다. 이렇게 영등포산선과 관계를 맺게 된 그녀는 1982년 콘트롤데이타 노조가 파괴된 이후 1983년 말부터 영등포산선에서 여러 개의 노동자 소모임을 맡게 되어 밤낮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운동을 이어가게 된다. 이와 함께 1984년도에는 콘트롤데이타 퇴직금으로 학원을 열어 운영하게 되지만 잘되지 않아 문을 닫게 되고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기노련 운동을 준비하게 된다. 그녀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라는 명분과 교회 노동자들을 동원해 좀 더 안정적이고 공개적인 노동자 대중운동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다고 한다.¹⁷⁾ 이렇듯 한명희는 민주노조 운동을 실천했던 노동자로 민주노조 파괴의 아픔을 겪으면서 그리고 영등포산업선교회와 관계를 맺게 되면서 교회의 자원(기독교노동자, 교회 건물 등)과 기독교라는 울타리를 활용한 새로운 노동운동의 길을 고민하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

신철영과 한명희는 이러한 과정 속에 꼭 사업장 내의 노조만이 아니라 노조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외곽조직으로서의 기독교노동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하게 되며, 보다 안정적으로 교회라는 언덕을 빌려 대중교육 사업과 대중집회라는 공개적인 운동이 가능한 기독교노동자 단체를 만들어보자는 목적의식을 갖고 기노련 건설을 계획하게 된다. 그리고 영등포산업선교회,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성수산업선교회에서 활동하는 몇 명의

17) 2019년 08월 05일, 맥도날드 영창DT점, 면담자 박철, 한명희 1차 인터뷰 중에서

노동자와 실무자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함께 논의를 진행해 나가게 된다.¹⁸⁾

다음으로 기노련 운동에 노동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신철영과 한명희는 그 같은 목적의식을 갖고, 일반 노동자들을 모으되 교회 쪽에 핵심적인 노동자들을 동원하면 기노련을 만들기에 앞서 우선 집회라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된다.¹⁹⁾ 집회를 추진하기 위해 모인 사람이 50명 정도 됐는데 이들은 1983년도에 ‘영등포 노동교회’에서 이름을 바꾼 ‘성문밖교회’의 노동자들, 그리고 일반교회인 양평동교회, 용산교회, 도림교회, 무학교회, 연동교회의 산업전도부에 소속된 노동자들이었다(한명희 2018, 71). 당시는 운동권에서 공개적인 집회를 열면 정권으로부터 가차 없이 저지를 당하던 시기였기에 노동단체라는 색깔이 드러나지 않도록 교회행사인 것처럼 준비하게 된다. 한 달 정도를 열심히 준비하는데 각자 그리고 싶은 그림으로 만국기를 흉내 내 만들기도 하고,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웅변, 시 낭독 등 행사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매일 모여 새벽 두 시까지도 연습하게 된다. 이렇듯 여러 사람이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식비며 기타 들어가는 자금이 필요했는데, 한 번은 무작정 114에 전화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화번호를 받아 DJ를 만나고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²⁰⁾ 이들은 이러한 준

18) 2019년 7월 16일, 충북 괴산 자택, 면담자 박철, 신철영 1차 인터뷰 중에서; 2019년 7월 11일, 민주인권센터, 면담자 박철, 유동우 2차 인터뷰 중에서; 2019년 08월 05일, 맥도날드 영창DT점, 면담자 박철, 한명희 1차 인터뷰 중에서

19) 2019년 08월 05일, 맥도날드 영창DT점, 면담자 박철, 한명희 1차 인터뷰 중에서

20) 2019년 8월 5일, 맥도날드 영창DT점, 면담자 박철, 한명희 1차 인터뷰 중에서

비 과정을 거쳐 1984년 11월 성문밖교회에서 노동문화큰잔치(노동문화제)²¹⁾를 치르게 되며, 이후 이 구성원들이 기노련의 초기 멤버로 참여하게 된다.

3) 기노련의 창립과 운영

기노련 구상에 관한 논의를 같이한 사람들은 노동문화제를 준비하고 행사를 치르는 과정을 보면서 기노련 건설에 대한 확신을 품게 된다. 행사 이후에 문화제를 치른 노동자들의 모임이 영등포산전에서 서클 활동으로 계속 운영됐는데, 그들은 이 노동자들에게 지금의 동력을 유지해 기독교노동자회를 만들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게 되고 결국 이들이 받아들여 기노련이 창립하게 된다.²²⁾

기노련은 이같이 일반교회 산업전도부 노동자라는 자원에 바탕을 두고 1985년 2월 5일에 건설된다. 초대회장에는 유동우가 추대되고 사무국장은 한명희가 맡게 된다. 처음 논의에 참여했던 신철영은 창립 이후 기노련 회원으로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멤버들에게 자체적인 운영을 맡기고 영등포산선 실무자로 계속 남았던 것이다. 초대회장으로 추대된 유

21) 『영등포산선교회 40년사』에는 “84년 11월 24~25일 ‘84노동문화큰잔치. 경찰에 의한 봉쇄, 폭행사건’(영등포산선교회 40년사 기획위원회 1998, 596)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명희는 이 행사를 ‘노동문화제’로 기억하고 있기에 확인해본 결과 둘이 동일한 행사라고 증명하면서도 경찰에 의해 봉쇄 되었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서 영등포산선 자료를 근거로 ‘노동문화큰잔치’라 표현했다.

22) 2019년 8월 5일, 맥도날드 영창DT점, 면담자 박철, 한명희 1차 인터뷰 중에서

동우는 삼원섬유 민주노조를 이끌었던 노동자로 노조 탄압에 의해 1974년 해고된 이후 여러 활동을 전개하다가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지만 지도부와의 갈등으로 사임하게 되고, 그 시기에 기노련이 건설되면서 노동운동 선배로서 기노련을 대표할 간판이 필요하다 하여 신철영의 권유로 회장을 맡게 된다. 회장으로서 그의 주된 활동은 기독교 운동 진영의 어른들에게 기노련 활동의 의미를 설득하는 일이었다고 한다.²³⁾ 서울지역 기독교노동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85년 2월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을 건설해 냈고, 그해 3월 10일 양평동교회에서 가진 창립 보고대회를 "떨리는 감격과 희망으로" 이루어 낸다. 보고대회에는 강원도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로부터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선배들, 그리고 새롭게 성장하는 18세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지역과 연령, 신앙의 차이를 떠나 약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하여 단결과 투쟁의 결의를 다지게 된다.²⁴⁾ 이렇게 출범한 기노련은 이후 영등포구청 앞, 영등포역 근처 등을 옮겨 다니며 사무실을 마련해 공개적으로 간판을 걸고 합법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²⁵⁾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에 관한 간략한 평가와 과제〉,²⁶⁾ 〈기독교 노동운동의 현황과 전망〉,²⁷⁾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정책협의회 토론회

23) 2019년 7월 11일, 민주인권센터, 면담자 박철, 유동우 2차 인터뷰 중에서

24) 〈기독교 노동운동의 현황과 전망〉(생산일자: 1991/00/00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25) 2019년 7월 11일, 민주인권센터, 면담자 박철, 유동우 2차 인터뷰 중에서

26)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에 관한 간략한 평가와 과제〉(생산일자: 19895/10/00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27) 〈기독교 노동운동의 현황과 전망〉(생산일자: 1991/00/00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안>²⁸⁾ 등에 따르면 기노련은 군사독재정권의 탄압에 의해 노동운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의 건설이 요청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여 창립되었고, 기독교를 배경으로 그 같은 자기 역할에 충신했다고 평가한다. 이는 기노련이 독재정권의 탄압을 피해 어느 정도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사회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며, 기노련이 창설되는데 이와 같은 '합법성'이 또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됐음을 파악할 수 있다. 기노련에게 부여된 합법성과 공개적인 성격은 급격한 양적 성장과 국가에 대한 적극적 혹은 암묵적 지지로 인해 국가 권력의 탄압으로부터 선택적 배제 상태에 있는 보수교회가 형성한 정치적 성역으로서의 상징성과, 에큐메니칼 운동진영의 국내·외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보다 자율적인 사회적 위상이 기독교라는 상징에 부과됨으로써 구성된 것이었다. 그리고 형법 제158조에 예배방해죄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적 조항 역시 종교적인 예배 모임을 국가 권력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교회를 통한 활동이 합법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합법성은 권위주의적 국가의 억압 효과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서 군사독재의 탄압이 심했던 시기에 한정된 사회적 속성이었다. 여하튼 기독교라는 상징성에 부과된 이러한 합법성은 기노련의 형성에 중요한 자원으로 동원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요소와 더불어 기노련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살

28)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정책협의회 토론회(생산일자: 미상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정책협의회)>

피면서 기노련 형성에 영향을 미친 인지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기노련이 추구했던 주관적인 가치는 창립선언문과 각종 노동 사건에 대한 선언서 및 정책 토론회 같은 자료²⁹⁾를 통해 드러나는데 무엇보다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창립선언>³⁰⁾의 첫 시작은 이러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기독교노동자 총연맹은 그리스도의 복음정신에 따라 이땅에 노동운동의 발전을 통하여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진정한 민주노동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동자의 주체적 조직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선포하신 민중해방의 복음은 지금 이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스스로 일어나 인간다운 삶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갈 것을 명하고 계시다. 우리는 민중속에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역사적 성육신의 의미를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신앙의 지표로 고백하며 정의와 자유와 평화가 성취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이처럼 기노련이 지향하는 목표는 노동자의 지위 향상, 진정한 민주노동사회 건설, 사회 변혁과 노동해방, 조국의 자주·민주·통일과 인간해방 등

29)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창립선언>(생산일자: 1985/02/03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노동운동 창간호 1985.8>(생산일자: 1985/08/00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소개>(생산일자: 1987/00/00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성명서[대우자동차 구속노동자 석방, 노동운동탄압정책중지, 폭력경찰 폭력기업가 처벌, 노동3권보장과 노동약법개정 주장]>(생산일자: 1985/06/13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정책협의회 토론회주제안>(생산일자: 미상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정책협의회), <기독교노동자운동에 대한 총괄적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생산일자: 1990/00/00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정책위원회), <기독교 노동운동의 현황과 전망>(생산일자: 1991/00/00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등을 살펴보았다.

30)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창립선언>(생산일자: 1985/02/03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과 같이 1980년대 일반적인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토대가 기독교적 가치에 근거해 있다는 점이다. 즉, 그러한 목표는 그리스도가 선포한 민중해방의 복음을 따라, 민중 속에 살고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역사적 성육신에 대한 신앙을 따라,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신념체계를 지닌 노동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노련은 민중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보았고, 노동운동과 하나님 정의를 동일시하고 있으며,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과 노동해방을 하나님 나라 건설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들은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정책을 하나님 나라 건설의 역행으로 규정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노동자를 자주적 노동자, 즉 민중으로 여긴다. 여기에는 기독교인과 민중이 결합되고, 기독교의 역사가 민중의 역사와 동일시(그리스도 및 성서의 역사=사회의 변화)되고 있다. 기노련은 또한 냉전적 사고와 물질주의 및 기복신앙에 사로잡힌 보수적인 교회의 변혁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의 근거 또한 보수적인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위배되고 민중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보수적인 교회들에 대한 기노련의 비판 속에도 민중과 그리스도가 동일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기노련이 1980년대 사회변혁운동이 지향했던 '민중'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과 조금 다른 점은 기노련이 그 같은 가치를 보다 성서적이고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노련은 그리스도와 민중을 동일시하고, 성서의 역사와 한국 민중의 역사를 일치시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주체로서 민중

을 중심에 두고, 민중의 해방을 이루고자 하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기노련이 추구했던 이 같은 가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데 첫째, 노동자의 가난과 비인간적인 상황의 원인이 미국과 세계 독점자본, 군부독재, 국내의 독점자본에 의해 발생한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보수적인 한국교회 또한 이러한 문제의 원인 제공자로서 기여한다는 진단을 내리게 한다. 둘째, 이러한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민중들이 주체적으로 일어나 인간다운 삶을 향해 당당히 걸어 나가는 사회참여(노동운동)가 필요하다는 처방을 내리게 한다. 셋째, 노동운동과 사회변혁이 민중 속에 함께 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활동의 정당성을 제시하여 기독교노동자들을 노동운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문헌자료에 대한 이 같은 분석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기노련 건설의 중심에 있던 신철영과 한명희가 영등포산선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했고 산업전도부 노동자들 또한 영등포산선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기독교 에큐메니칼 진영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노련 구성원들도 어느 정도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조직 구성과 운영에 중요한 요소인 자금 사정을 살펴보겠다. 신철영은 기노련 창립 초기에 영등포산선에서 소액의 자금을 지원했을 것으로 보지만 기노련이 산업선교회의 본격적인 사업이라 하기도 그렇고, 외부에 프로젝트를 내서 지원받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증언한다.³¹⁾ 한명희는 처음 기노련이 시작할

때 자금뿐만 아니라 사무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기억한다. 유인물과 같은 인쇄는 영등포산선 사무실에서 무료로 이용하고, 현수막을 만들더라도 돈이 없어 동생 가게를 이용했다. 그리고 회비도 정할 수 없는 분위기여서 회비 걷는 것 또한 힘들었고, 창립총회도 간식 하나 없이 진행했다는 것이다. 집회를 열 때 모임 장소는 영등포산선(성문밖교회)³²⁾과 회원들 교회를 무료로 빌려 썼고 행사를 계획 하더라도 최대한 돈이 안 드는 방향으로 준비했으며, KNCC가 기독교 운동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신청서를 내도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바가 없었다는 것이다.³³⁾ 어떤 목사의 소개로 호주 교회에서 500만 원 정도를 한 번 지원 받은 것 외에는, 기노련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은 한명희가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아 충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행사를 준비하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아는 분들을 찾아가서 부탁하기도 하고, 모르는 분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할 때는 주위에 그분을 아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돈이 모이면 우선 가장 활동이 활발한 전남 광주지역의 기독교노동자연맹에 활동비와 사업비를 보내고, 다음으로 기노련 회장 활동비와 사무실 운영비에 사용했다고 한다. 정작 돈이 없어 본인의 활동비는 집에 의존했다는 것이다.³⁴⁾ 후에는 사정이 조금은 나아진 것으로

31) 2019년 7월 16일, 충북 괴산 자택, 면담자 박철, 신철영 1차 인터뷰 중에서

32)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영등포산업선교회 회관은 1978년 10월에 착공해 1979년 7월에 준공된다(영등포산업선교회 40년사 기획위원회 1998, 589). 이렇게 지어진 건물은 1980년대 각종 소그룹 모임과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개적인 장소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33) 2019년 8월 5일, 맥도날드 옆창DT점, 면담자 박철, 한명희 1차 인터뷰 중에서

34) 2019년 8월 5일, 맥도날드 옆창DT점, 면담자 박철, 한명희 1차 인터뷰 중에서

보이는데 한명희가 1987년 말 기노련 사무국장을 그만둔 이후 작성된 <1988년 수입 결산 보고>³⁵⁾를 살펴보면 이사회와 해외 기관인 CCA(아시아교회협의회)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³⁶⁾

3. 1980년대 노동운동과 기노련

창립 이후 전개된 기노련의 활동은 크게 3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군사독재정권이 유지되던 1985년 2월~1987년 7,8,9 투쟁 시기이고, 제2기는 민주화 이행기로서 노동운동의 활로가 살아나 기노련의 위상이 흔들리는 1987년 7,8,9 투쟁 이후~1990년 시기이며, 제3기는 기노련의 새로운 정체성 수립이 요구되는 1991년 이후의 시기이다. 1980년대 기노련의 활동은 1기와 2기에 해당하는데, 1기는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했던데 반해, 2기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변화 상황 속에서 기노련 지도부의 사퇴로 지도력 공백이 나타나 역할과 기능이 대폭 축소된 시기로 평가된다.³⁷⁾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다음에서는 제1기의 활동에 초점을 맞춰 당시 기노련의 역할과 그 의미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35) <1988년 수입 결산 보고>(생산일자: 1989/03/11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36) 여기서 참고할 사항은 1988년 결산에 이사회 모금 예산 달성은 20%에 그치고, 교회기관 모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으며, 해외 모금은 CCA에서 보내온 것인데 기노련 수입의 98.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37) <기독교노동자운동에 대한 총괄적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생산일자: 1990/00/00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정책위원회)

1) 정치투쟁과 노조 지원활동

1985년에서 1987년까지 기노련이 수행했던 사회적 역할 중 하나는 군사독재정권의 퇴진을 통한 민주사회의 실현과 노동자들의 권위 회복이었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처한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비인간적인 상황이 무엇보다도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정권의 타도를 주요 슬로건으로 삼았다. 창립선언문은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활동’이 ‘사회적 무관심과 정치적 억압’을 통해 파괴되고 방해받고 있다고 선언하는데, 그것은 독재정권에 대한 정치적인 투쟁과 함께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활동인 노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노련에게 있어 중요한 목표임을 드러낸 것이다.

기노련은 각종 신문과 유인물(성명서, 선언문 및 지침서 등)을 작성하고 배포하여 노동자들의 상황을 알리고, 억압된 현실의 원인을 규명하며, 나아가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노동자들을 추동했다. 신문과 유인물 등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발행되고 배포되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노동자들³⁸⁾이 정보를 제공해주고 기노련 홍보부³⁹⁾에서 초안을 작성한 후 지도부(회장과 사무국장)가 함께 검토 과정을 거쳐 완성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는 을지로에 있는 “운동권 인쇄하는 곳” 등에서 복사해 각 지역연맹에 보내지며, 회원들에 의해 자신들이 출석하

38) 기노련 창립 이후 지역연맹이 결성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3)연대운동’을 참조.

39) 홍보부에서 신문을 만드는 작업을 했지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그때그때 일 할 수 있는 멤버들이 초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는 교회나 사업장 동료들에게 배포된다.⁴⁰⁾

기노련이 발행한 신문은 기노련신문,⁴¹⁾ 기노련신문 호외(투쟁 속보),⁴²⁾ 만화신문⁴³⁾이었는데 다른 기사와 속보의 내용은 주로 노동문제 관한 것

-
- 40) 2019년 8월 19일, 맥도날드 염창DT점, 면담자 박철, 한명희 2차 인터뷰 중에서
- 41) <기노련신문 창간호>(생산일자: 1986/08/01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기노련신문 제2호>(생산일자: 1986/08/15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기노련신문 제3호>(생산일자: 1986/09/05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기노련신문 제4호>(생산일자: 1986/10/21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기노련신문 제5호>(생산일자: 1986/12/05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기노련신문 제6호>(생산일자: 1987/02/17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기노련신문 제7호>(생산일자: 1987/03/22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기노련신문 제8호>(생산일자: 1987/05/07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 42) <기노련신문 호외-“군사독재타도”외치며 쓰러져 광주노동자 분신사망>(생산일자: 19⁸⁷/03/06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기노련신문 호외-제일피복 노동조합 설립 투쟁 중>(생산일자: 1987/04/03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기노련신문 호외-포항서 택시기사 5백명 시위>(생산일자: 1987/04/03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기노련신문 호외-이리 후레어훼손 700명 파업 농성돌입>(생산일자: 1987/04/09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기노련신문 호외-완전 월급제 쟁취투쟁 정부와 싸우게 될지도>(생산일자: 1987/04/15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기노련신문 호외-악질기업 경동산업 식칼 각목 구둣발이 난무>(생산일자: 1987/05/07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기노련 신문-부천 흥양교역 노동자 단결해 임금인상 관철>(생산일자: 1987/05/15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기노련신문 호외-이대로 죽을 순 없다>(생산일자: 1987/05/27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기노련신문 호외-군포금성 전선 중기공장 전노동자 1200명 파업농성 승리>(생산일자: 1987/06/16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기노련신문 호외-노조활동 자유 쟁취>(생산일자: 1987/06/28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기노련신문 호외-후레어훼손 해고노동자들 독일대사관서 복직요구농성>(생산일자: 1987/07/03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기노련신문 호외-경기도안산전환실업 노동자 가스중독 병원입원>(생산일자: 1987/07/05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기노련신문 호외-노조사무실 복구투쟁>(생산일자: 1987/07/11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기노련신문 호외-서울기독병원파업농성승리>(생산일자: 1987/10/19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 43) <만화신문 제1호>(생산일자: 1987/06/05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만화신문 제2호>(생산일자: 1987/07/05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들이었으며, 당시 메인 언론에서 다루지 않거나 축소 보도하는 노동 현장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다 자세하고 상세히 기록하였다. <기노련신문 창간호>⁴⁴⁾ 창간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신문의 주된 목표는 노동 실상의 폭로와 의로운 투쟁의 신속 보도를 통해 기독교노동자들의 의식을 일깨움으로써 노동운동을 확장 시키는 데 있었다. 이처럼 기노련은 신문을 통해 노동문제에 관한 대안적인 언론 활동을 실천했던 것이다. 이들의 이러한 언론 보도는 열악한 노동자의 현실을 제공한 원인이 미국, 독재정권, 독점자본에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투쟁임을 알렸다. 그리고 노동법, 노조를 조직하는 방법, 각 사업장에서의 투쟁 소식과 투쟁 방법 등을 기사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합법적인 운동으로서의 노동조합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기노련은 또한 각종 유인물을 통해 이 같은 활동을 고무시켰다. 군사 독재정권은 회사와 결탁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⁴⁵⁾ 경찰 권력을 투입해 무자비한 폭력으로 노동운동을 억압하며,⁴⁶⁾ 부당한 이유로 해고된 여성노동자들의 저항을 폭행으로 처리하

<만화신문 제3호>(생산일자: 1987/08/05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만화신문 제4호>(생산일자: 1987/09/25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만화신문 제5호>(생산일자: 1987/10/15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만화신문 제6호>(생산일자: 1987/11/10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만화신문 제7호>(생산일자: 1987/12/24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만화신문 제8호>(생산일자: 1988/02/05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44) <기노련신문 창간호>(생산일자: 1986/08/01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45) <상여금은 임금이다. 정당하게 받아내자!>(생산일자: 1986/00/00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46) <성명서[대우자동차 구속노동자 석방, 노동운동탄압정책중지, 폭력경찰 폭력기업가 처벌,

고 있다.⁴⁷⁾ 그들은 어용노조를 앞세워 노동자를 탄압하며,⁴⁸⁾ 불황과 실업을 이유로 저임금을 강요하면서 허황된 희망과 달콤한 거짓말로 노동자가 취해야 할 몫을 빼앗아가고,⁴⁹⁾ 나아가 노동자의 항거를 폭력으로 대응함으로써 목숨까지 앗아가는⁵⁰⁾ 만행을 저지른다. 군사정권은 또한 노동자들의 노조결성에 대해 사장과 폭력경찰, 구로구청과 노동부직원, 국가안전기획부 요원까지 동원하여 노조를 깨뜨리려는 획책을 하고 있다.⁵¹⁾ 기노련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군사독재를 타도하여 노동자들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에 중요한 사명임을 알리고 있다. 특히 임금투쟁⁵²⁾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만을 추구하는 활동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정치적 폭로와 저임금을 조장하는 군부독재타도라는 슬로건을 제시함으로써 노동대중을 계급의식화하여 이를 정치투쟁의 계기로 삼고자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단순히 회사 내의 문제로 보일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그 근본적인

노동3권보장과 노동악법개정 주장](생산일자: 1985/06/13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 47) <성도접유는 부당해고시킨 여성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생산일자: 1985/06/04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 48) <전국일천만노동자여! 노동운동탄압세력어디에서물어내자!>(생산일자: 1985/12/05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 49) <저임금 강요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생산일자: 1986/00/00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 50) <“신흥정밀 투쟁 속보 및 故 박영진 열사 유언”>(생산일자: 1986/03/18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 51) <성명서-노동운동 탄압하는 전두환 군사독재 타도하자!!!>(생산일자: 1986/09/03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 52) <기독교운동권 86년 입부 정책회의>(생산일자: 1986/01/22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원인이 폭압적인 군사정권에 있음을 규명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정치적 투쟁의 일선으로 나아가 노동자의 주체적인 역량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명서와 선언문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합시다’와 ‘우리의 주장’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구체적인 행동 방식과 구호를 제시함으로써 노동자 대중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86년 임금인상투쟁 지침서〉⁵³⁾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 방안을 서술해 놓음으로써 노동자들이 어떻게 정치투쟁과 노동운동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 제시하고 있다. 기노련은 이렇듯 성명서, 선언문, 지침서 등을 제작·배포하여 노동자 대중을 의식화하고 그들을 정치투쟁의 현장으로 이끌어냄으로써 노동자들의 복지와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을 실천했던 것이다.

기노련은 임금인상 투쟁을 지원하고, 일상적으로는 영등포산선이나 사무실에서 노동자들을 만나 노동조합결성과 노조의 활동 및 노동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전개했으며,⁵⁴⁾ 투쟁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지 방문하는 등의 활동 또한 실천했다.⁵⁵⁾ 기노련 초대 회장과 사무국장은 노동운동에 있어 노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는데, 이들은 노조가 끝났고 이제는 혁명적인 전위조직이 필요하다는 서노련의 입장에 반대하여 여전히 노조를 세우고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노련은 노조를 돕는 대중조직이라는 점을 이야기했다.⁵⁶⁾

53) 〈'86년 임금인상투쟁 지침서〉(생산일자: 1986/01/20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54) 2019년 7월 11일, 민주인권센터, 면담자 박철, 유동우 2차 인터뷰 중에서; 2019년 8월 19일, 맥도날드 영창DT점, 면담자 박철, 한명희 2차 인터뷰 중에서

55) 2019년 8월 5일, 맥도날드 영창DT점, 면담자 박철, 한명희 1차 인터뷰 중에서

56) 2019년 7월 11일, 민주인권센터, 면담자 박철, 유동우 2차 인터뷰 중에서; 2019년

이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기노련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억압적인 정권에 대한 투쟁을 선언함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복지와 권위 및 주체적인 활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조를 지원하는 활동을 추구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기노련에게 있어서 정치투쟁과 노조운동은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 모두가 다 중요한 운동과제였던 것이다. 기노련이 이런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신문과 유인물을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네트워크, 그리고 노동자들을 만나 상담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가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며, 이런 공개적인 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기독교라는 상징적인 울타리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2) 대중집회

기노련에게 있어 중요한 또 하나의 활동은 정기적인 집회와 행사였다. 기노련은 1985~87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집회를 열었는데 1985년 3월 10일 양평동교회에서 노동절행사,⁵⁷⁾ 1986년 3월 10일 성문박교회에서 노동절 기념대회⁵⁸⁾가 있었고, 1986년 한 해 동안에는 13번 정도의 대중 집회를 열었다(한명희·유경순 2019, 354).⁵⁹⁾ 그리고 1986년 9월 14일 서울 지역연맹이 결성된 이후에 서울지역의 대중집회는 기노련이 아니라 서

8월 5일, 맥도날드 염창DT점, 면담자 박철, 한명희 1차 인터뷰 중에서
 57) <기독교 노동운동의 현황과 전망>(생산일자: 1991/00/00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58) <'86 노동절 기념대회-기념예배및 기념대회[안내]>(생산일자: 1986/03/10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59) 2019년 8월 5일, 맥도날드 염창DT점, 면담자 박철, 한명희 1차 인터뷰 중에서

울지역연맹 이름으로 진행됐는데 1987년까지 약 10번 정도의 공식적인 행사가 이루어졌다.⁶⁰⁾ 유동우에 따르면 다른 노동운동조직들이 찾아와 인원을 동원할 테니 대중집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⁶¹⁾ 집회 후에는 가두투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1986년에는 영등포로타리에서 20분 정도 시위를 하며 경찰과 부딪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⁶²⁾ 한명희는 기노련 준비단계에서 1984년 11월에 열린 노동문화제에 1000명가량의 인파가 모였으며, 창립대회를 가진 1985년 3월 노동절 집회 때에는 2000명가량의 사람이 참여했다고 기억한다.⁶³⁾ 그리고 1986년 3월 기노련이 주최한 노동절 기념대회에는 10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영등포산업선교회40년사 기획위원회 1998, 600) 그 같은 집회가 열리면 서노련, 인노련, 인민노련, 제헌의회(CA) 등이 참여해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얘기를 대자보로 붙이기도 하고, 이름 밝히고 말하기 어려운 주의·주장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펼치기도 했다는 것이다.⁶⁴⁾ 한명희는 대중집회를 교육 공간으로 상정하고 대중집회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노련이 그 같은 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이러한 대중집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졌을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교회라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울타리를 활용하여 정기적인 행사가 열

60) <’91임시 대의원총회>(생산일자: 1991/04/14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 서울지역연맹)

61) 2019년 7월 11일, 민주인권센터, 면담자 박철, 유동우 2차 인터뷰 중에서

62) 2019년 7월 11일, 민주인권센터, 면담자 박철, 유동우 2차 인터뷰 중에서; 2019년 8월 5일, 맥도날드 영창DT점, 면담자 박철, 한명희 1차 인터뷰 중에서

63) 2019년 8월 5일, 맥도날드 영창DT점, 면담자 박철, 한명희 1차 인터뷰 중에서

64) 2019년 8월 19일, 맥도날드 영창DT점, 면담자 박철, 한명희 2차 인터뷰 중에서

림으로써 다양한 운동 조직과 노동자들이 모여 자신들을 홍보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둘째, 이 같은 홍보와 토론의 장은 노동자 대중을 의식화하고 교육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셋째, 대중집회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기노련의 그러한 활동은 국가의 탄압으로 노동운동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토론과 교육과 연대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비밀리에 활동하는 조직들에게 작게나마 숨통을 터주고, 침체된 노동운동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기노련이 그 같은 대중집회를 열 수 있었던 이유는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확보된 기독교노동자들이라는 인적자원과 교회 장소를 빌려 이용할 수 있는 교회 측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기독교라는 상징성이 제공해주는 합법성이 보호막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대중집회는 영등포산선 및 민중교회 목회자들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한 목사는 기노련이 급진적인 노동운동을 하는 조직들을 불러 모아 기독교와 맞지 않는 일을 한다고 화를 내기도 했으며, 민중교회 목사들과는 잦은 집회에 필요한 인원을 민중교회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교회 자체적인 행사 때문에 노동자들을 보내줄 수 없게 되자 갈등을 빚기도 했다.⁶⁵⁾

65) 2019년 8월 5일, 맥도날드 영창DT점, 면담자 박철, 한명희 1차 인터뷰 중에서

3) 연대운동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창립선언〉⁶⁶⁾에는 “구조적인 사회의 모순과 이를 지배하는 모든 세력을 세상의 악으로 규정하며 전체 민중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명기하고, “한국기독교노동자 총연맹이 전체 민중운동과 노동운동의 목표를 공동으로 추구하는 부문운동임을 명백히 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노동자와 민중운동세력과의 협력과 연대를 추구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기노련은 한국사회 전체 민중운동의 일 부분으로서 여타 세력들과 연대해 나가는 운동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 기노련과 관련된 다른 여러 자료에서도 그 같은 연대에 대한 강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운동 조직들과의 밀접한 연대뿐만 아니라 농민운동, 학생운동, 사회운동 등과도 강한 연대를 추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억압적인 군사독재정권의 탄압 속에서 분열보다는 결집된 힘을 통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기노련의 이러한 연대활동은 우선 지역연맹 조직 사업을 통해 잘 드러난다. 1985년 2월 3일 기노련이 건설된 직후, 1985년 6월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남지역연맹이 결성되고, 1985년 12월 인천지역연맹, 1986년 9월 서울지역연맹, 1987년 9월 수원지역연맹이 건설됐다.⁶⁷⁾ 이는 당시

66)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창립선언〉(생산일자: 1985/02/03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67)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정책협의회 토론회주제안〉(생산일자: 미상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정책협의회)

노동운동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각 지역에 연맹이 결성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기노련은 지역연맹이 만들어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먼저 조직되어 초기 운동 동력을 형성하게 된 기노련이, 이후 그 힘을 바탕으로 각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기독교노동자들과 산업선교회 및 민중교회와 연합함으로써 지역연맹이 건설되도록 도움을 준 것이다.⁶⁸⁾ 기노련 초대회장이 인천지역연맹에서도 활동했다는 점과, 그가 광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전남지역연맹이 결성됐다는 점,⁶⁹⁾ 그리고 기노련 초대사무국장이 서울지역연맹 건설에 참여하고 초대회장을 맡았다는 점⁷⁰⁾ 등이 그 같은 사실을 말해준다. 기노련은 이렇듯 지역의 기독교노동자들과 연대를 통해 지역노동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기노련의 연대운동은 기독교 내부의 다른 운동 단체들과도 이루어졌다. 앞서 기노련의 형성과정에서도 살폈다시피 기노련은 도시산업선교회, 일반교회 산업전도부 그리고 민중교회와 공동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협력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1986년 임금 투쟁에 관한 문서들⁷¹⁾에서 볼 수 있듯이 기노련은 K와 기청협과도 협력관계를 이루었다. K는

68) 2019년 7월 11일, 민주인권센터, 면담자 박철, 유동우 2차 인터뷰 중에서; 2019년 8월 19일, 맥도날드 영창DT점, 면담자 박철, 한명희 2차 인터뷰 중에서

69) 2019년 7월 11일, 민주인권센터, 면담자 박철, 유동우 2차 인터뷰 중에서

70) 2019년 8월 5일, 맥도날드 영창DT점, 면담자 박철, 한명희 1차 인터뷰 중에서

71) <기독교노동권 86년 임투 정책회의>(생산일자: 1986/01/22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개신교 임투준비 2차모임 보고>(생산일자: 1986/02/03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개신교 임투 제차 모임>(생산일자: 1986/02/12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한국기독학생총연맹(KSCF)을 말하며, 기청협은 기청, 감청, 장청의 연합조직인 EYC(한국기독청년협의회)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선전지 제작팀에 공동 참여하며 조직적 배포를 위해 동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노련은 그 외에도 다양한 기독교 단체들과 협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전단지 등을 만들어 연대를 이루는 운동 또한 실천했다.⁷²⁾

기노련은 이 같은 기독교 단체와의 연대만이 아니라 일반 노동운동권과도 연대를 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1986년 임금 투쟁 당시 회의 내용들⁷³⁾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기노련, 성남생투위, 인삼투, 서노련은 다음과 같이 1986년 임투의 원칙을 1차 합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자료에서 “연대를 위해”, “내용은 연대” 등과 같이 연대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기노련이 노동운동 조직간 연대를 중요시하였음을 말해준다. 여타 노동운동권과의 이와 같은 연대는 공동 성명서⁷⁴⁾나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
- 72) <나까소네 방한과 '86아시아경기 대회 즈음한 기독교인의 입장>(생산일자: 1986/09/10 생산자: 한국기독노동자총연맹 외), <고문 살인정권의 파렴치한 횡포를 단결하여 물리치자>(생산일자: 1987/02/03 생산자: 한국기독노동자총연맹 외)에 기록된 공동성명 발표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주민선교협의회, 한국기독교노동선교협의회, 기독교민회 등.
 - 73) <기독운동권 86년 임투 정책회의>(생산일자: 1986/01/22 생산자: 한국기독노동자총연맹), <개신교 임투준비 2차모임 보고>(생산일자: 1986/02/03 생산자: 한국기독노동자총연맹), <개신교 임투 제차 모임>(생산일자: 1986/02/12 생산자: 한국기독노동자총연맹)
 - 74) <범한무전은 살인적인 대량 감원,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생산일자: 1985/00/00 생산자: 한국기독노동자총연맹 외), <투쟁의 신호탄이 울랐다! 온몸으로 싸워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자!>(생산일자: 1986/03/23 생산자: 고박영진노동열사추도위원회), <결의문-고 박종철동지 추모식 및 고문,살인 정권 타도를 위한 노동자대회에 붙여>(생산일자: 1987/01/25 생산자: 한국기독노동자총연맹 외)

특정 사건에 대해 공동 추진위원회를 형성하는⁷⁵⁾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활동은 한명희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녀는 유인물을 만들기 위해 서노련, 인노련 사람들을 비밀리에 만나기도 하고, 시국에 따른 집회나 추모행사 등 80년대 다양한 연대활동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 수없이 경찰서를 드나드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⁷⁶⁾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노련은 노동절예배와 같은 집회를 통해 정파나 지역에 상관없이 다양한 운동조직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연대운동의 활로를 열어 놓았다. 이러한 연대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기노련이 80년대 한국 사회의 변혁 운동이 지향하는 민중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더불어 기노련 구성원들이 형성한 다양한 인맥과 관계가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⁷⁷⁾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독재정권 타도라는 공동의 목표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연대운동이 가능했던 것이다.

75) <고 박영진 노동열사 추모식>(생산일자: 1986/03/23 생산자: 고박영진노동열사추도위원회), <고 박영진 노동열사 장례식>(생산일자: 1986/04/27 생산자: 고박영진노동열사장례위원회), <고 박종철동지 추모식 및 고문 살인 정권 타도를 위한 노동자 대회>(생산일자: 1987/01/25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외)

76) 2019년 8월 5일, 맥도날드 영창DT점, 면담자 박철, 한명희 1차 인터뷰 중에서; 2019년 8월 19일, 맥도날드 영창DT점, 면담자 박철, 한명희 2차 인터뷰 중에서

77) 구술자들의 인터뷰에는 기노련 구성원들 외에 본인들이 관계 맺은 다양한 사람들과 단체들이 거론되는데 이런 사실은 기노련이 운동권 안에서 여러 갈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4. 결론

지금까지 기노련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살피면서 1980년대 노동운동에서 그들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 논해보았다. 기노련은 유화국면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한국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기독교노동자들과는 인적 자원, 기독교라는 울타리를 이용한 합법성, 그리고 부족한 자금 사정 가운데서도 활용 가능한 여러 물질적 자원들(인맥, 네트워크, 교회장소 등)을 확보하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민중을 이해하는 주관적 가치에 근거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기노련은 노동운동에서 요구되는 여러 사항, 특히 공개적인 특성을 살려 전개할 수 있었던 정치투쟁과 노조 지원, 대중집회, 연대운동 등을 실천하였다.

1980년대 노동운동에서 기노련이 갖는 의의는 첫째로 그들에 앞선 기독교 노동운동과 달리 목회자나 지도자가 아니라 일반 교회 신자들이 중심이 된 운동이었고, 학생운동출신의 참여도 최소화된 기독교노동자 중심의 활동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기노련은 노동자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운동이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둘째로 사업장 밖에서 전위적이고 혁명적이며 정치적인 운동에 중점을 둔 다른 운동조직과 달리 기노련은 정치적인 투쟁과 함께 사업장 내의 합법적인 노동조합운동을 지원함으로써 양자 간 균형을 이루는 노동자 대중운동조직이었다는 점이다. 기노련은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 정치적인 투쟁과 함께 노조를 지원함으로써 노동자 대중을 가시적으로 견인해내는 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기노

련은 소그룹 중심의 산업선교회와 달리 대중집회와 연대운동을 통해 기독교 노동운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기노련은 지역연맹이 형성된 다음 중앙조직으로서 특별한 위상을 세우지 못하고, 1987년 7,8,9 투쟁 이후 초대 임원들이 사임하면서 그 역할이 더욱 축소되는 한계⁷⁸⁾를 가지고 있었다. 신문발행에 있어서도 원래 계획된 발간 횟수를 채우지 못하고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⁷⁹⁾ 자금상의 어려움⁸⁰⁾을 겪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문과 유인물 등을 활용한 방식이 정치투쟁과 노조 지원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왔는지는 미지수이며, 지역연대 운동 또한 대부분의 연대가 개별 사안과 사건별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협력이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기노련은 공개적인 노동운동 조직의 필요에 의해 기독교 자원과 신앙을 토대로 출범하게 됐지만 확고한 자기 위상과 운동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한계 속에서 1980년대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1987년 민주화 이후 노조운동과 기타 노동운동이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자 운동의 자기 동력이 미약해지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78)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에 관한 간략한 평가와 과제>(생산일자: 1989/10/00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기독교노동자운동에 대한 총괄적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생산일자: 1990/00/00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정책위원회)

79) <기노련 신문 제 1호에서 6호까지의 평가>(생산일자: 198*/00/00 생산자: 미상)

80)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신문만이 기노련신문 받는 이들에게 보내는 현금관련 수발신문서>(생산일자: 미상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신문반)

기노련에 대한 이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함의를 갖는다. 하나는 1980년대 전개되었던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발견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미처 다루지 못한 운동을 발굴함으로써 한국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확장해 가는데 기여했다. 다른 하나는 1960~70년대 산업선교회 위주의 기독교 노동운동이 1980년대 초 국가의 대대적인 탄압을 받은 이후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독교노동자들에 의해 주체적으로 건설된 기노련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는 것은 물론, 그들과 연결된 1980년대 다른 기독교 노동운동들에 대한 단초들을 본문을 통해 제공했다. 하지만 이 연구가 갖는 한계도 분명한데 그것은 1987년 7.8.9 투쟁 이후 전개된 기노련의 운동과 조직변화⁸¹⁾ 그리고 지역연맹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며, 1980년대 다른 노동운동조직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기노련이 갖는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노련에 대한 보다 정밀한 평가는 그 같은 총체적인 분석 가운데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그렇지 못한 한계를 갖는데 이는 차후 연구를 통해 극복될 것이다. ~~XXXX~~

81) <기독교노동자운동에 대한 총괄적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생산일자: 1990/00/00 생산자: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정책위원회)에는 1987년 7.8.9 투쟁~1990년 시기 기노련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기간 중 총연맹 사무국은 ‘총연맹은 활동을 적게 하면 할수록 앞으로의 기노련 발전을 위해 유익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활동기능을 현저히 약화시켰으며, 주활동 내용을 각 지역연맹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하고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정도의 활동으로 국한했다. 한편으로 총연맹 사무국은 기독교노동자운동의 근거마련을 위한 제반이론작업과 이를 조직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교육·훈련사업에 매진하였다.”

참고문헌

- 강인철. 2007.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 도서출판 중심.
- 구해근. 2002.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신광영 역. 창작과 비평사.
- 김경재. 2013. “강원용 목사와 에큐메니칼 운동 - 여해(如海)의 에큐메니칼 사상과 활동 그리고 한국에서의 실천.” 『기독교사상』 659. 222-245.
- 박상증 편저. 1992. 『한국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 대한기독교서회.
- 박철·이종구. 2015. “1980년대 구로지역 민중교회와 노동운동: 민중교회의 형성과정과 역할에 관한 고찰.” 『산업노동연구』. 21(1) 305-341.
- 신진욱. 2004. “사회운동, 정치적 기회구조, 그리고 폭력-1960~1986년 한국 노동자 집단행동의 레퍼토리와 저항의 사이클.” 『한국사회학』 38(6). 219-250.
- 연규홍. 1998. “WCC 50년 역사와 한국교회.” 『神學 思想』 103. 83-105.
- 영등포산업선교회 40년사 기획위원회. 1998. 『영등포산업선교회 4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등포산업선교회.
- 은수미. 2006. “80년대 한국 학생운동이 노동운동에 끼친 영향.” 『기억과 전망』 15. 199-238.
- 이원보. 2007. 『한국노동운동사-100년의 기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장숙경. 2013. 『산업선교, 그리고 70년대 노동운동』. 선인.
- 최현·김지영. 2007. “구조, 의미틀과 정치적 기회-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 『경제와 사회』 75. 251-281.
- 한명희. 2018. 『당당한 명희씨』. 도서출판 아름다운날.
- 한명희·유경순. 2019. “콘텐츠데이터의 여성노동자에서 서울시 여성 시의원으로 한명희의 삶과 활동을 듣다.” 『기억과 전망』 40. 319-379.
- WCC. 1993. 『세계교회협의회 역대총회 종합보고서』. 이형기 역. 한국장로교출판사.

Abstract

**Korean Christian workers and the Labor Movement in
the 1980s**

**The Formation and Roles of the Korea Federation of Christian
Workers(KFCW)**

Park, Chul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h. D. Course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Korean Federation of Christian Workers (KFCW) developed since the 1980s, unlike the Urban Industrial Missions (UIM) which led the Christian labor movement in the 1960s and 1970s.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development and activities of the KFCW, the process of organizational formation and their role in the 1980s labor movement was discussed. KFCW was formed by the necessity of a new labor movement utilizing church resources while the democratic unions that were related to UIM were destroyed in the 1970s, and UIM also suffered from national repression. They were an autonomous organization, lead by regular laborers who were church goers and not student activists or pastors or staff of UIM. KFCW conducted open and legitimate activities under the Christian umbrella, and practiced political struggles, union support, and solidarity movements. The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opening the way to the labor movement by organizing meetings in churches where laborers could gather especially when public assembly was forbidden in the 1980s. However, conflict between the UIM and the pastors of the Minjung Church, and poor resources etc



hindered their activit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s the role of the KFCW and expands the democratic and labour movement in Korea by discovering new historical facts.

■ **Keywords:** Christian Workers, Labor Movement, Legitimacy, Urban Industrial Missions(UIM), Korean Federation of Christian Workers(KFCW)

투고 : 2019/09/30 심사 : 2019/10/16 확정 : 2019/11/09